

미 국방부는 2015년 8월에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이하 ‘아태 해양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Rebalancing Policy)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와 노력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최근 동·남중국해에서 각 국의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미국이 해당해역에 대한 향후 행동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글은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상에 명시된 미국의 주 노력 방향을 4가지로 구분(해군이 중심이 된 아태 해역에서 군사력 강화, 동맹국 및 협력국가들의 해양안보능력 구축 지원, 무력충돌 위험의 경감을 위한 노력, 지역안보체계의 구축 및 국제적 규범의 정착 지원)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 추진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2가지로 구분(① 갈등의 심화 측면: 동·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분쟁 심화, 중국의 미사일 전력증강 가속화 ② 협력의 증진 측면: 미중간 무력충돌의 가능성 감소,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협력관계 강화)하여 전망하였다.

: , , , ,

## I. 서론

21세기는 명실상부한 해양의 시대로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해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양의 지리적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연해국가들의 갈등과 분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동·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주변 해역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확립하여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국과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이 첨예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이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군사·외교적으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동·남중국해에서 지리·경제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라 한다.)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 주변국가들 역시 미국의 이러한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2015년 8월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Ais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이하 ‘아태 해양전략’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이는 아태 해역을 둘러싼 미중간 경쟁과 동아시아 해양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와 노력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sup>1)</sup>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항행의 자유작전(Operation Freedom of Navigation)’이라는 방식으로 곧바로 현실화되고 있다. 2015년 10월 27일,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USS Lassen)은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에서 중국이 매립을 진행하고 있는 7개의 암초/사주 중의 한 곳인 수비환초(Subi reef)의 12해리 이내로 항해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다. 이 작전은 2015년 9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이 매우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침으로써 공해에서의 무해통항의 권리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군사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2)</sup>

1) 박창권, “미국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594호(15-47), 2015, p.2.

2) “South China Sea: US Navy Destroyer Asserts Freedom of Navigation Near Fiery Cross Reef” The Diplomat, May 10, 2015, [thediplomat.com/2015/05/south-china-sea-us-navy-destroyer-asserts-freedom](http://thediplomat.com/2015/05/south-china-sea-us-navy-destroyer-asserts-freedom)

미중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①미중간의 갈등<sup>3)</sup> 혹은 협력<sup>4)</sup> ②동아시아에서의 미중간 해양패권 대립<sup>5)</sup>으로 나눌 수 있다. 미중간의 갈등과 협력의 경우 국제정치학에서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활용하여 미중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미중간 해양패권 대립의 경우 중국 해양전략의 공세성 및 해양전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 논의와는 달리 최근에 미국이 발표한 아태 해양전략을 살펴보고 해당전략이 차후에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태 해양전략은 미 국방부가 아태 해역에서의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역내 해양안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주변국과 공조 하에 중국의 해양 팽창정책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아태 해역에서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은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국가안보전략과 해양전략의 관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살펴보겠다. III장에서 2015년 8월 발표된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 상에 명시된 미국의 주 노력 방향을 4가지<sup>6)</sup>로 구분(해군이 중심이 된 아태 해역에서 군사력 강화, 동맹국 및 협력국가들의 해양안보능력 구축 지원, 무력충돌 위험의 경감을 위한 노력, 지역안보체계의 구축 및 국제적 규범의 정착 지원)하고 이 노력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 IV장에서는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 추진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2가지로 구분(①갈등의 심화 측면: 동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분쟁 심화, 중국의 미사일 전력증강 가속화 ②협력의 증진 측면: 미중간 무력충돌의 가능성 감소,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협력 관계 강화)하여 살펴보고 V장에서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of-navigation-near-fiery-cross-reet(검색일 : 2016, 6.10)

- 3) 김동수, “미중 관계의 변화와 신동북아 질서” 『CHINA 연구』 제18호 2015; 신욱희, “미중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통합적 이론으로서 위험균형/위협전이론” 『Asia Review 2(1)』 2012.
- 4) 오경택,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 미중 협력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8권 제1호, 2014.
- 5) 강병환,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중국의 대응-해상패권경쟁과 갈등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8권 제1호, 2014; 서정경,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미중관계 : 중국의 해양대국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2), 2010.
- 6)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Achieving U.S.National Security Objectives in a Changing Environment.” 2015, pp.19-20.

## II. 이론적 고찰

### 1. 국가안보전략과 해양전략

존 콜린스(John Collins)는 국가전략을 “전쟁시를 막론하고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국가의 모든 힘을 규합해 내는 것”이라 정의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크게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발전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의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루며 국가발전전략은 국가의 번영과 경제발전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국가안보전략은 정치·군사전문가들이 전쟁시 대내외 위협을 고려하여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력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sup>8)</sup> 중심행위자는 군이며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계획되는 것이 군사전략이다. 군사전략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술과 과학”<sup>9)</sup>이라 정의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군사전략은 상위의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군사전략의 하위에 해당하는 해양전략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목적을 실현 또는 지원하기 위해 해군을 포함한 해양력의 활동을 이끌어 가는 기본 원칙 및 지침의 총체”라고 정의<sup>10)</sup>된다. 궁극적으로 해양전략은 해양을 활용하여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미국은 세계의 모든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이며 현재의 세계화라는 흐름도 미국이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무역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에서 해양력은 독립 이래 국가의 존립과 대외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힘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sup>11)</sup> 현재까지도 미국은 모든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해양세력으로서 세계의 모든 지역에 힘을 투사하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서 해양전략은 국가안보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7) 존 콜린스, 『대전략론』,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79, p.63.

8)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4, p.113.

9)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p.58.

10) John Baylis,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An Introduction to Strategic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113-136.

11) Robert Hanks, *American sea power and Global Strateg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1985, p. 1.

## 2.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 해군의 기본임무는 바다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다. 무역국가인 미국에게 세계를 향한 무역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국익이 될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념적, 군사적, 경제적 차원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에게 중요성이 높았던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세계 시장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둘째 잠재적 도전세력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성장이 심상치 않게 되었으며, 셋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테러리즘의 배후지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해양전략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인 것이다.<sup>12)</sup>

지난해 1월에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상 동아시아 전략에서 미국은 여전히 자신을 태평양 국가(Pacific Power)로 규정하며,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정에 필수적인 지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원칙은 영토의 현상유지이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다.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재균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맹국을 규합하고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여 분쟁 악화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동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마일 방위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중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침공하는 경우에는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본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엄격하게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중국해 수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영토는 아니며 따라서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설사 해당 수역이 영해의 일부라고 해도 모든 선박/항공기에 적용되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은 인정되어야 하며, 항행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될 수 없으며 해당 수역이 어느 국가의 EEZ에 소속되는가에 대해서 미국은 엄격하게 중립을 지킬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산호초를 매립하거나 해양 구조물을 건

12) 조윤영,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해군력”, 『동서연구』 제21권 제2호, 2009, p.17.

설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미국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정책의 연장에서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은 현재 동아시아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분쟁에 관한 미국의 해양력 사용 의도와 향후의 행동을 전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서로 평가되며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 Ⅲ. 미국 아시아태평양 해양전략의 분석

아태 해양전략은 기존에 미국이 천명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규정한 미 국방부의 핵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미국은 아태 해양안보전략의 목표를 아태 해양에서 국제법상 명시된 자유로운 해양의 사용을 보장하고 어느 한 국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해양의 이용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향후 취해야 할 노력의 방향(lines of effort)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II장에서는 4가지 노력선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노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 1. 해군이 중심이 된 아태 해역에서 군사력 강화

미국은 아태 해역에서 ① 해양, 공중 및 수중에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 ②잠재적 해양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응능력 ③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전력 투사능력 강화를 위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USS George Washington)을 로널드레이건함(USS Ronald Regan)으로 교체하고, 해병 작전을 지원하는 상륙강습함 에메리카함(USS America)을 2020년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지스함 2척을 일본에 추가로 배치하고 기뢰대항전력도 증강할 것이다. 공중전력의 강화를 위해 F-22, B-2 및 B-52 전략폭격기를 지역에 유지하며, 향후 구매할 F-35 대부분을 아태지역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sup>14)</sup>

1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pp.61-63.

14) U.S. Department of Defense, (2015), pp.20-22.

신속한 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해 미국은 아태 해역에 전방 전개전력을 더욱 증대시킬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2020년까지 해·공군 전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으며 미 해군은 향후 5년간 미 영토가 아닌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함정 규모를 30% 증대하여 전방 전개능력을 유지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러한 계획은 아태 해역에 최신 함정의 배치 및 전개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2011년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새로이 건조될 연안전투함을 싱가포르에 배치할 것이라고 최초로 발표한 이후 2013년 프리덤함(USS Freedom)이 최초로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전방 전개 및 현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연안전투함 2번 함인 포트워스함(USS Fort Worth) 역시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장기 전방 전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의 창이기지(Changi Base)에 연안전투함을 정기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능력을 구비하고 3-2-1 개념<sup>15)</sup>으로 승조원을 운용함으로써 연안전투함을 미 본토로 복귀시키지 않고 장기간 아태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6)</sup> 미국은 향후 2016년까지 연안전투함 4척을 싱가포르에 전개시키고 2척 이상은 상시 해상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 해역에서 미 해군력의 현시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미 해군은 최신형 줌월트급 구축함(USS Zumwalt)<sup>17)</sup>을 미 서부의 샌디에이고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18)</sup> 이는 최신 성능을 자랑하는 함정을 핵심해역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아태 해양전략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력을 호주, 괌 및 일본 본토에 분산 배치하여 위기 대응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괌을 태평양의 전략기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잠수함을 추가배치하고 해병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합동고속수송선을 2018년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15) 3개의 승조원팀 중 2개팀은 함정 2척에 주기적으로 순환배치하고 나머지 한 팀은 휴식 및 육상업무를 하게 하는 함정운용개념으로서, 기존 함정별 승조원 고정배치 방식보다 함정의 해외전개기간을 2배 가량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6) U.S. Navy Official Website, "Fort Worth Completes PMAV".(2016.1.13.)www.navy.mil/submit/display.asp?story\_id=94794(검색일 : 2016. 5.31.)

17) 줌월트급 구축함의 구체적 능력 및 탑재무기체계의 성능에 관해서는 이형민, "Zumwalt(DD 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Strategy 21』, Vol.17, No.2, 2014, pp.178-206. 참조

18) U.S. Navy Official Website, "Future USS Zumwalt will have San Diego Homeport". (2016. 5. 20.) www.navy.mil/submit/display.asp?story\_id=94794(검색일 : 2016. 5.31.)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 해군은 E-2D 항모 조기경보통제기 24대, P-8A 포세이돈 해양초계기 48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트리톤 무인기를 태평양사령부 예하에 2017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아태 해역에 대한 해양상황인식능력(Maritime Domain Awareness)<sup>19)</sup>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동맹국 및 협력국가들의 해양안보능력 구축 지원

미국은 동맹 및 협력국가들이 자국의 해양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역내 국가들의 해군력 현대화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적 체계, 훈련능력 등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미 해군과 동남아시아 지역국가들과 실시하는 연례 합동해상훈련(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CARAT)<sup>20)</sup>라고 할 수 있다. 연례 합동해상훈련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일랜드 등 6개국을 대상으로 1995년에 최초로 시작되었다. 2010년에는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2012년에는 동티모르(Timor Leste)가 참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총 9개국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 종목은 초창기에는 단순한 해상기동 등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륙훈련,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훈련, 밀수차단훈련, 해양차단훈련, 무인기 상호운용훈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훈련의 목표는 미국과 협력국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해군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며, 참가국 해군의 해양안보관련 작전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특히 협력국가 해군의 정보공유절차, 해양차단작전, 대해적작전 및 밀수차단작전 수행능력 등과 같은 해양안보역량의 배양을 지원하고 양국 해군간 공동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한다.<sup>21)</sup>

19) 해양상황인식이란 특정국가가 자국의 안보와 안전, 경제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나 사건들을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Bueger, Christian. "From Dusk to Dawn? Maritime Domain Awareness in Southeast Asi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Vol.37, No.2, 2015, pp.159-160.

20) 1995년 미 해군은 이전부터 서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여러 해상훈련을 통합하여 CARAT 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일 지휘관이 전체 훈련일정을 조정·관리하고 시행함으로써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훈련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현재는 미 7함대 사령부의 73기동부대가 CARAT 의 계획 및 시행을 책임지고 있다. <http://exercisecarat.wordpress.com/about/>(검색일 : 2016. 6. 2.)



특히 미국은 연례 해상훈련 시 동맹 및 협력국가 해군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 해군이 서로 상이한 형태의 함정 및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호운용성이 갖추어져 있다면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공통의 절차에 적용하여 매끄럽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미국은 타국의 강압 행위에 연안국 해군이 자신의 해양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닌 다수의 국가가 특정국가의 강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비한 상호운용성 역시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역내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의 해양상황인식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해양상황유지 능력 구축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는 정보융합센터(Information Fusion Center)의 운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융합센터<sup>22)</sup>는 2009년 창설되었으며,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안보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센터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창이해군기지에 위치한 정보융합센터는 총 25개국과 네트워크체계를 구성하여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말라카해협 및 남중국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적활동 및 해양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양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안보 위협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례적인 해양정보공유훈련(Maritime Information Sharing Exercise) 등을 통해 긴급 상황발생 시 정보전파체계를 구축하고 각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sup>23)</sup> 미국은 싱가포르와 해양정보 공유실무단(Singapore Maritime Information Sharing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아

21) Bradford, John F. "The Maritim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for Indo-Pacific Sea Lane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33, No.2, 2011, pp.201-202.

22) 2007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 위치한 해군대학에서 개최된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International Seapower Symposium)에 참가한 해군 각국 해군 지휘부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09년 싱가포르 해군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융합센터가 창설되었다. 정보융합센터의 총괄운영은 싱가포르 해군에서 담당하나 각 종 실무는 다양한 국가에서 파견된 연락장교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Lim, Nicholas. "The Information Fusion Centre(IFC)-A Case for Information Sharing to Enforce in the Maritime Domain," *Pointer: Journal of the Singapore Armed Forces Supplement*, April 2011, pp.3-10.

23) Bueger, Christian.(2015), pp.169-170.

태 지역에서 정보공유능력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융합센터가 지역의 정보공유 중심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sup>24)</sup>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역내 국가들의 해양안보 능력 및 해양상황인식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서 각 당사국이 중국의 확대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동맹국 및 역내 협력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서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진출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 3. 무력충돌 위험의 경감을 위한 노력

미국은 아태 해역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의 양자간 노력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이해 당사국들을 모두 포괄하는 다자간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군사력의 사용 또는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호간의 합의와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하여 동남중국해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 표현이다. 나아가 중국이 상호 합의 및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도발적 행동에 나설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의 입장과 우려를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중국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이러한 미국의 노력의 대표적인 예는 미중 양자간 공중 및 해양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안전행동준칙(Rules of Behavior for the Safety of Air and Maritime Encounters)의 합의,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에서 합의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CUES) 합의 및 적용 대상 확대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UNCLOS)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은 조업 및 해저자원탐사와 같은 경제적 활동에 국한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경제적 활동 뿐 아니라 군사적 활동까지 관

24) U.S. Department of Defense.(2015), p.28.

25) Erickson, Andrew S. "America's Security Role in the South China Sea."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9, No.1, 2016, p.19.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6)</sup>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정찰 및 정보 수집을 하는 미 해군 함정 및 항공기의 활동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해상 및 공중에서 직접적인 충돌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sup>27)</sup> 이러한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예방하고 중국과 맞은 군사해양협력 합의(Military Maritime Consultative Agreement)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미국은 중국과의 공중 및 해양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안전행동준칙에 합의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이 합의가 양국 군용 함정 및 항공기의 해상과 공중에서 안전을 증대시키고 양국 군사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및 안정을 강화시키는데도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 안전행동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군사적 활동에 관한 각국의 정치적 견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한계점도 노출하였다.<sup>28)</sup> 합의서에 부칙으로 포함된 함정간 조우시 안전행동준칙(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Surface-to-Surface Encounters)에서는 양국 군용 함정이 해상에서 조우 시에는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행동의 협조를 통하여 항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29)</sup> 또한 2015년 9월 양국은 2014년 합의시 포함되지 못한 항공기간 조우 시 안전행동준칙(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Surface-to-Surface Encounters)에 추가적으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양국 군용

26) Redden, Mark E. and Saunders, Phillip C. *Managing Sino-U.S. Air and Naval Interactions: Cold War Lessons and New Avenues of Approach*.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Study of Chinese Military Affairs,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2, pp. 5-7. EEZ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차이를 자세히 다룬 연구는 Dutton, Peter(e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A U.S.-China Dialogue on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Maritime Commons*. Newport, RI: China Maritime Studies Institute, U.S. Naval War College, 2010.

27) 예를 들어 2001년 4월 미국 EP-3 정찰기와 중국전투기의 충돌 및 하이난섬 불시착, 2009년 3월 미 해양조사선 임페커블(USNS Impeccable)에 대한 중국해군 호위함 및 공군의 활동방해, 2014년 미 해군 P-8 해양초계기에 중국전투기가 근접하여 위협비행을 한 것 등이 있다. O'Rourke, Ronald.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EEZ) Disputes Involving China: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pp.11-14.

28)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the 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Air and Maritime Encounters. (November 12, 2014), Section V.

29) Annex II, 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Surface-to-Surface Encounters, Section III, IV. 구체적인 행동절차는 대부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72) 및 CUES의 관련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항공기가 조우 시 정보교환절차, 비행안전을 위한 상호 분리, 식별 및 확인차 접근 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30)</sup>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우발적인 무력충동의 위험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동-남중국해에서 정찰 및 정보수집 활동에 종사하는 미군 전력들이 중국의 예상치 못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미중 양자간 합의 이외에도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회원국(27개국)간에 해군 함정 및 해군 항공기가 해상에서 불시에 조우했을 때에 대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정보교환 절차 및 기동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이하 “해상 신호규칙”이라 한다.)에 합의하였다.<sup>31)</sup> 해상 신호규칙 본문에는 이 규칙은 국제협약 또는 조약이 아니고 국제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국제민간항공규칙이나 국제협약, 조약 또는 국제법에 적용되는 규칙보다 우선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sup>32)</sup> 해상 신호규칙은 2014년 4월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본회의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해상 신호규칙의 채택 및 적용을 통해 해상에서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해군간의 상호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sup>33)</sup>

기본적으로 해상 신호규칙은 해군 함정 및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의 적용범위를 해양경찰 및 해양사법기관 소속 선박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실무회의 시 미국은 해상 신호규칙의 적용 범위를 해군 함정 뿐 아니라 해경 및 해양 사법기관 소속 선박으로까지 확대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sup>34)</sup> 이어 2016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15차 서태

30) Annex III, Rules for Behavior for Safety of Air-to-Air Encounters, Section III, IV. 구체적인 행동절차는 대부분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및 CUES의 관련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31)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은 1992년 제3차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8년 초안이 완성되었다. 2000년 시험적용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인 수정·보완작업을 거친 끝에 2014년 CUES Version 1.0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32)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Version 1.0. (April 22, 2014), pp.5-6.

33) O'Rourke, Ronald.(2015), pp.17-19.

34) “Improving Order in the East China Sea,” The Diplomat, May 04, 2015. thediplomat.com/2015/05/improving-order-in-the-east-china-sea(검색일 : 2016. 6. 1.)

평양 해군 심포지엄 본회의에서도 미국은 재차 해상 신호규칙의 확대 적용을 제안하였다.<sup>35)</sup> 동·남중국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 함정은 물론이고 해경 및 해양사법기관 소속 함정들 역시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준군사조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군사력 운용을 제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해군 함정간 해상 신호규칙의 적용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적용 대상의 확대 역시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 단순히 제시되어 있는 해상 신호규칙의 각종 안전 및 위험 회피 절차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현재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와 준수로 운영되고 있는 해상 신호규칙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형태로까지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예상된다.

#### 4. 지역안보체계의 구축 및 국제적 규범의 정착 지원

미국은 아태 지역의 각종 지역안보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역내의 각종 안보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sup>36)</sup> 특히 미국은 아태 지역의 다양한 지역안보체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이슈화 되는 것은 자국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분쟁당사자간 양자 해결방식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지역안보체계에 다자기구에서 양자간 갈등문제를 다루게 되면 중국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은 지역안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역내 국가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지역안보체계로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및 서태평양해군 심포지엄(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등이 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역내

35) Speech of Admiral Scott Swift,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Pandang Indonesia April 14, 2016. [www.cpf.navy.mil/leaders/scott-swift/speeches/2016/04/western-pacific-naval-symposium.pdf](http://www.cpf.navy.mil/leaders/scott-swift/speeches/2016/04/western-pacific-naval-symposium.pdf) (검색일 : 2016. 6. 1.)

36) U.S. Department of Defense.(2015), p.32.

국가간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로서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sup>37)</sup> 미국은 최초에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정에 유리하고 아울러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분쟁에 있어서 미국의 조정과 역할을 증대를 통하여 지역 패권을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자연안보기구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을 활용하고 있다.<sup>38)</sup>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는 이전부터 운영되던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을 2010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협의체로 확대한 것이다.<sup>39)</sup> 미국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핀 및 베트남과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제 10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시 미국은 남중국 해역에서 국제법 준수 및 국제적 규범의 확립을 주장하며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천명하였다. 더불어 미국은 역내 국가들과 함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sup>40)</sup> 이러한 언급은 중국의 일방적 팽창에 반대하는 역내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서태평양해군 심포지엄(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은 서태평양 지역 해군간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이해도를 증진하며, 해양안보협력을 목표로 1988년에 설

37) ASEAN 회원국 10개국 이외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여 총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참여국가간 신뢰 구축 및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초에는 핵확산방지 등과 같은 전통적 안보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재난구호, 밀수·마약밀매 예방, 해양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http://aseanregionalforum.asean.org/about.html>(검색일: 2016. 6. 7.)

38) 반면 중국은 아세안 역내지역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을 지지하고 있으나 여기에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중국봉쇄나 중국과의 무력분쟁에 동원될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강병환,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중국의 대응-해상패권경쟁과 갈등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Vol.38, No.1 (2014), p.109.

39) ASEAN 회원국 10개국 이외에 추가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여한다.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해양안보, 군 의료지원, 대테러활동 및 평화유지활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구성되어 있다. <https://admm.asean.org/>(검색일: 2016. 6. 7.)

40) Secretary of Defense Ash Carter, Remarks at the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Kuala Lumpur, Malaysia, Nov. 04, 2015. [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view/article/628351](http://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view/article/628351)(검색일: 2016. 5.31.)

립된 해군 대 해군 간 다자협력대화체이다. 태평양 연안국 뿐 아니라 인도양, 남미 및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참여하여 2016년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1)</sup> 미국은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을 해군 차원에서 아태 지역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의 확대적용 추진, 다국적 훈련의 지속 시행 제안 등과 같이 서태평양해군 심포지엄을 국제적 규범의 확립 및 역내국가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을 추구하는 미국이 중국의 팽창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도 예전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는 중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역내의 다양한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하여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바, 남중국해 지역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아태 해역에서 중국의 팽창의 지지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은 다자간 지역안보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항행의 자유로 대변되는 국제적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IV.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양전략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Ⅲ장에서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의 기본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는 ‘동아시아에서 국가간 갈등의 심화와 협력의 증진’라고 요약할 수 있다. 갈등의 심화를 유발하는 내용은 ① 미국의 아태해역으로의 군사력 강화 ② 동맹국 및 협력국가들의 해양안보 능력 구축 지원이고 협력의 증진을 유발하는 내용은 ① 무력충돌 위험 경감의 노력과 지역안보체계의 구축 ② 국제적 규범 정착 지원이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은 동아시아에서 국가간 갈등의 심화와 협력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내용과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외교·군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의 아태 해양안보전략이 동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내용을 2가지(동아시아 국가간의 갈등의 심화와 협력의 증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갈등의 심화 내용으

41) <http://wpns.tnial.mild:8080/beritaWPNS/lengkap/1031>(검색일 : 2016. 5.31.)

로 ① 동·남중국해에서의 마·일 對 중간 분쟁 심화 ② 중국의 미사일(Missile) 전력 증강 가속화를 제시했으며 협력의 증진 내용으로 ① 미중간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 ②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협력 관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 1. 갈등의 심화 측면

### 1) 동·남중국해에서의 마·일 對 중간 분쟁 심화

우선 남중국해<sup>42)</sup>에서 분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74년부터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를 둘러싼 중국, 대만, 베트남과의 분쟁이고, 두 번째는 황암도(黃巖島, Scarborough Shoal)를 두고 중국, 대만, 필리핀의 분쟁이며 세 번째는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의 분쟁이다.<sup>43)</sup> 남중국해는 군사전략적인 측면<sup>44)</sup>과 경제적 가치<sup>45)</sup>로 인해서 중국 및 인접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의 확대 선언을 야기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중국은 9단선(Nine-Dash Line)을 상정<sup>46)</sup>하고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해양 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을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대만 등의 국가에서 난사군도에 있는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그림 2 참조)하면서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있다.<sup>47)</sup>

42) 남중국해에는 180여개의 섬, 암초, 사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면에 돌출해 있는 섬이 11개, 암초가 135개, 사주가 6개 있으며 면적은 100㎡ 이상 되는 섬이 7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만조시에 수면하에 잠겨버리는 산호초들이다. 변창구, “남중국해 분쟁과 아세안의 다자주의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37권 제3호, 1998, p.139.

43) U.S. Department of Defense.(2015. 8.), p. 6.

44)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막고자 하고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를 내해로 만들어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우방국들의 항행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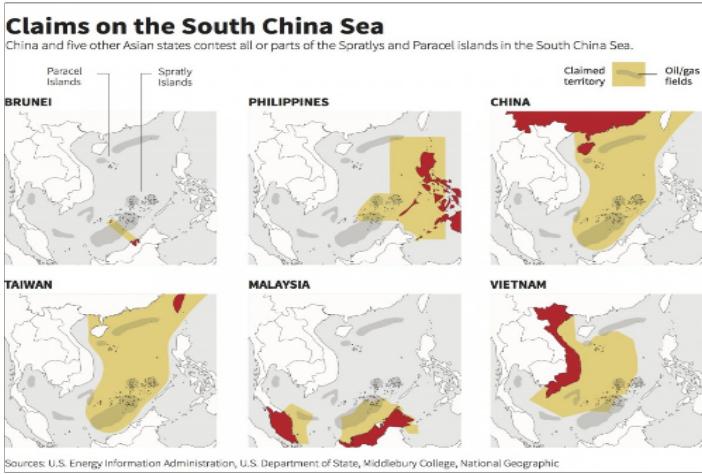
45) 전 세계 해상물류의 50%, 원유 수송의 60% 정도가 남중국해를 지나고 원유 280억 배럴과 천연가스 7,500km<sup>3</sup> 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6) “중국, 70년전 ‘남해9단선’ 영해기선으로 고집할까.” 연합뉴스(온라인) 2015년 8월 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4/0200000000AKR20150804098000083.HTML>(검색일: 2016.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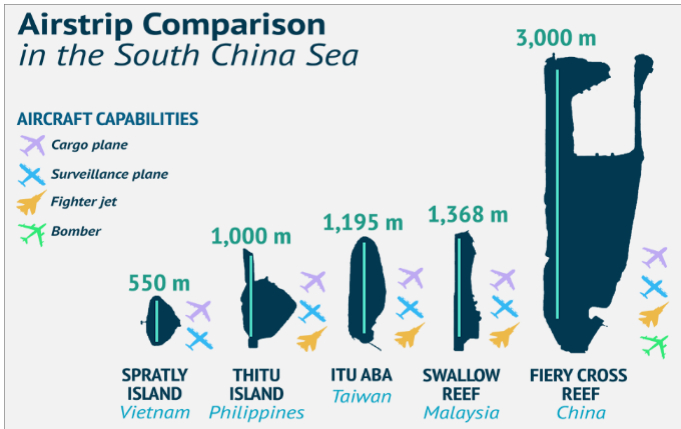
47) 중국의 경우 2016년 4월 17일 난사군도에 있는 인공섬(FIERY CROSS REEF)에 군용기를 처음으로 착륙시켰으며 이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미국, 난사군도 인공섬 중국 군용기 착륙에 강력 항의”, 뉴스시스(온라인) 2016년 4월 19일 [http://www.newsis.com/a\\_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9\\_0014031528&cID=10101&pID=10100](http://www.newsis.com/a_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9_0014031528&cID=10101&pID=10100)(검색일 : 2016. 6.10.)



<그림 1. 국가별 영유권 주장 구역 비교>48)



<그림 2. 국가별 인공섬 내 활주로 건설 현황>49)



48) <http://www.vilaweb.cat/noticies/sis-mapes-per-entendre-perque-el-conflicte-del-mar-de-la-xin-a-pot-ser-la-mes-gran-crisi-mundial-en-poc-temps/>(검색일 : 2016년 6월 2일)

49) <http://amti.csis.org/airstrips-scs/>(검색일 : 2016년 6월 1일)

미국은 아태 해양전략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확대 시도를 미 국방부의 중요한 도전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제법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평화적인 해양분쟁 해결 노력을 중국에게 요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50)</sup> 미국의 법에 의한 해양분쟁의 해결 노력과 중국의 힘에 의한 영역권 확대가 충돌하면서 차후에도 양국 간의 해당지역에서의 해양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중국해<sup>51)</sup>에서는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과 일본간 분쟁이 존재한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69년 해당 지역에 지하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센카쿠 열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적 지배 중이며 2012년 9월 일본이 국유화를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중일은 지속적으로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에서 “일본의 센카쿠 열도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sup>52)</sup>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sup>53)</sup>하면서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분쟁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공식화한 바 있다. 현재는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고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에 따라서 미·일 대중의 구조로 영유권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중국의 미사일(Missile) 전력 증강 가속화

미국은 과거부터 항공모함과 이에 탑재된 항공기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군사력을 현시하고 원하는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전략을 수행해 왔다.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에서 확인하였듯이 신형 함정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면서 기존의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는 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최근

50) U.S. Department of Defense.(2015), p. 6, 30.

51) 센카쿠열도는 페르시아-인도양-말라카 해협-동남중국해-일본열도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의 핵심 해상 교통로의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에게는 중국 대륙 진출과 동시에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는 반면, 중국에게는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더불어 동 열도 주변 해역에 석유 자원 및 천연가스, 그리고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센카쿠열도를 확보하는 것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통한 풍부한 어족자원과 에너지자원을 확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기주·황병선 “센카쿠(다오위다오)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53권 제2호(통권35집), 2013, 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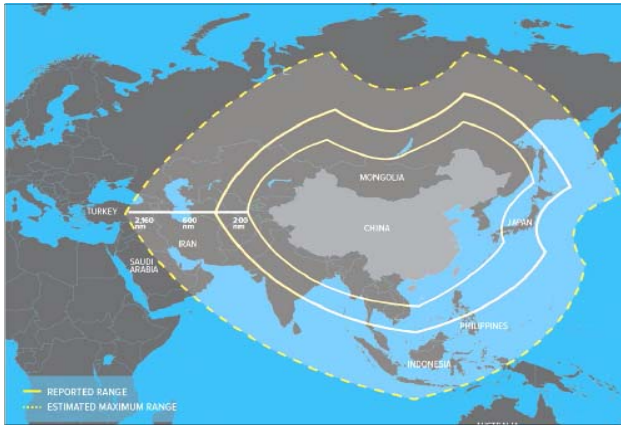
52) 1960년에 조인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조항으로서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을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두 나라가 자국의 헌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협에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3) U.S. Department of Defense.(2015), p. 8

중국의 A2AD<sup>54)</sup> 수행 능력이 증대되면서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탄도미사일<sup>55)</sup>이 그 위협의 중심에 있다.

중국은 2015년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다양한 미사일을 선보였다.<sup>56)</sup> 중국의 미사일에는 ‘공세적 자국 방어’와 ‘북한 지원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전략적 기능이 맞물려 있다. 이 중 공세적 방어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개념으로 ① 미국이 핵공격을 하면 미 본토를 핵무기로 역공해 방어하고 ② 미 재래식 군사력의 중국 접근을 막아 방어하는 전략(反접근/지역거부 : Anti-Access/Area Denial, A2AD)의 구조로 되어 있다.<sup>57)</sup> 중국은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비대칭전력의 하나인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5 중국 보유 미사일의 사정(위협)거리〉<sup>58)</sup>



54) A2/AD(Anti-Access and Area Denial)는 1996년 마중 간 대만해협 갈등을 계기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발전된 개념으로 A2는 작전구역 내로 미군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AD는 작전지역 내에서 미군 전력의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거부하는 것이다.

55) 중국 보유 미사일별 사정거리 구분 : SRBM(중국으로부터 200nm,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포함), MRBM(중국으로부터 600nm, 동/남중국해 및 일본, 필리핀을 포함), IRBM(600nm 이상, 괌 및 아라비안 해 포함) Kelly sayler, "RED ALERT: The Growing threat to U.S. Aircraft Carrier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6 February, p. 1.

56) “중국 열병식 신무기 미·일 겨냥 무언의 시위.” 『연합뉴스』(온라인) 2015년 9월 5일, [http://www.yonhapnews.co.kr/video/2602000001.html?cid=MYH20150905005500038&input=1825m\(검색일: 2016. 6. 2.\)](http://www.yonhapnews.co.kr/video/2602000001.html?cid=MYH20150905005500038&input=1825m(검색일: 2016. 6. 2.))

57) 안성규,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15, p. 1.

58) Kelly sayler(2016), p. 4.

2015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는 '우선 ICBM의 경우 중국은 2014년 말에 2005년보다 20기 늘어난 50~60기를 지상 배치했다. 구형인 DF-5는 다탄두화해 파괴력을 키우고, DF-31(CSS-10)과 DF-31A 신형도 추가했다. 사거리가 11,200km 이상인 DF-31A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새로운 이동형 ICBM DF-41(CSS-X-20)도 개발 중이다.

SRBM의 경우 10년 전에는 중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백기를 보유하여 대만을 공격할 정도로 제1도련선 내의 공격력은 기초 수준이었으며 오키나와와 괌을 공격할 수 없었으나 현재 중국은 재래식 탄두미사일을 최소 1,200발 보유한다' 고 명시했다.

MRBM(DF-21D, DF-26)은 A2AD의 핵심 전력이다. 지금까지 DF-21D가 1,500~2,000km 사이인 제1도련선까지의 미국 군사력 접근을 막는 핵심 전력이었다면 DF-26은 이를 3,00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미사일이다. MRBM의 핵심은 사거리 1,700km인 DF-21(CSS-5) 미사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DF-21A, DF-21C, DF-21D가 개발됐다. DF-21D(CSS-5 Mod 5)는 항공모함 요격미사일(Anti ShipBallistic Missile, ASBM)이다. 전술용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며 정밀 유도되는 DF-21D는 중국 A2AD 전략의 축으로 본토 해안 900nm 내로 진입하는 '적의 항모'를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1,800km인 DF-21C(CSS-5 Mod 4)로 추정되는 미사일도 실전 배치됐는데 중말유도형으로 정밀 타격능력이 있으며 오키나와 일본 본토도 공격 가능하다. 중국은 사거리를 훨씬 늘려 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ASBM도 개발 중인 것으로 관측됐었고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최소 3,500km 이상이다.<sup>59)</sup>

이에 더하여 2014년 초기부터 중국은 시사 및 난사 군도에 부두시설, 항공기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해당섬에 A2AD 전력들을 배치한다는 데에 있다. 시사 군도내의 우디섬(Woody Island)과 난사 군도내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Fiery Cross Reef)에는 UAVs, 전투기 등이 이착함 할 수 있는 활주소가 건설됨으로써 최선에 전투기 J-11, 대공 미사일(HQ-9) 등이 2016년 2월에 배치되었다. 섬 내에 해당전력들의 배치는 중국의 A2AD 능력 범위를 호주까지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미국의 항모에 명백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sup>60)</sup>

59)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2015, p. 16, 40, 43.

60) Kelly sayler(2016), p. 5.

〈그림 6. 중국의 A2AD 개념도〉<sup>61)</sup>



〈그림 7. 우디섬(Woody Island) 및 피어리 크로스암초 (Fiery Cross Reef)에서의 위협 확장 거리〉<sup>62)</sup>



61) globalita.com via CIMSEC <http://globalbalita.com/wp-content/uploads/2012/10/Air-Sea-Battle-map.jpg>, <http://cimsec.org/strategic-architectures>. (검색일 : 2016년 6월 1일)

62) ibid, p. 7.

위와 같이 중국은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과 군사적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본토 연안에서 1,500km 범위 내로 진입하는 미국의 항모 접근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미사일의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협력의 증진 측면

### 1) 미중간 무력충돌의 가능성 감소

아태해역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항공모함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간 무력충돌 위험 경감의 노력과 지역안보체계의 구축 및 국제적 규범의 정착 지원 등은 동아시아에서 미중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국은 앞에서 제시한 기구 이외에도 WTO와 같은 국제적 다자기구는 물론 ASEAN+3 (아세안+한,중,일), EAS(East Asia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 협력기구) 등 수많은 지역제도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로 인해 중국은 점차 국제적 규범과 규칙을 수용하게 되고 다양한 국제제도들이 중국의 행위에 제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질서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여러 세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상관자로서 인식하기도 한다.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기 회복문제, 국제금융질서 개편문제, 기후통화문제, 환경 및 기후 문제, 핵 비확산 문제, 국제테러문제 등을 중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하여 풀어나가려는 관여(engagement) 정책 기초를 유지할 것이다. 특히 현재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미중간 경제 교류는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양국간 갈등이 증폭되기에는 그 비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양국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가고 있다.<sup>63)</sup>

2013년 마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들이 합의한 “신형대국관계”라는 용어도

63) 김동수, 2015, p.70-73.

미중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의 감소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미중이 과거의 갈등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은 미래의 세계질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회담 후 브리핑에서 톰 도닐런(Tom Donilon)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래에 미중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논박하고 미국은 미중관계가 불필요하게 전략적 라이벌 관계로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sup>64)</sup> 따라서 미중 양국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협력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은 양국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협력 관계 강화

미국은 아태 해양전략에서 동맹국 및 협력국가들의 해양안보능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앞장서서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의 해양대국화 전략<sup>65)</sup>에 대응하여 냉전 종식 이후 다소 느슨해진 전통적인 동남아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다시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미국은 2015년 11월 17일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양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2015년 회계연도에 1억1190만원, 2016년 회계연도에 1억 4000만달러 총 2억5900억 달러(약 3033억원)를 투입한다. 이들 자금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 지원될 계획이다.<sup>66)</sup>

또한 2016년 3월 19일에 미국과 필리핀 양국은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개최

64) Tom Donilon, "Press Briefing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Tom Donilon"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8/press-briefing-nationalsecurity-adviso(검색일: 2016. 8.18)

65) 류재득은 근해방어 전략과 더불어 해군의 '3단계' 발전전략도 제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1세기 초에 제1도련(鳥鏈, Island Chain: 쿠릴 열도, 일본 열도,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과 2020년경 제2도련(오키나와 동쪽의 보닌 제도, 미국의 마리아나 섬, 괌, 그리고 캐롤라인 제도를 연결하는 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2050년 경에는 대양해군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결국 지금 현재 표명되고 있는 근해방어 전략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 이후에는 대양해군을 향한 정책적 방향이 추진될 것임을 의미한다. 하도형, "중국 해양 전략의 인식적 기반," 『국방연구』 제55권 제3호, 2012, p. 64.

66) "미국, 동남아 지역에 해양 안보 강화에 3000억원 투입," 『중앙일보』 (온라인) 2015년 11월 18일, <http://news.joins.com/article/19092880>(검색일: 2016. 5.23).

하여 필리핀의 공군기지 4곳과 육군기지 1곳을 미군이 사용한다는데 합의<sup>67)</sup>함으로써 양국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양국의 정기훈련인 발리카탄(Balikatan)<sup>68)</sup>은 2015년 4월에 호주까지 참여하여 총 병력 11,000명이 동원되어 2014년 훈련에 비해 2배 규모로 진행되었고, 2016년에는 처음으로 미국의 국방장관이 해당훈련을 참관함으로써 군사공조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주목할 것은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도와외의 관계이다.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커지면서 과거 적대국이던 베트남과의 관계는 밀접하게 발전하고 있다. 2016년 5월 23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미국은 베트남에 대해 50년 가까이 적용됐던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 해제한다”고 공식 선언 하였다. 이는 미국이 베트남전 종전 직후인 1975년 무기 금수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41년 만에 해제한 것이다.<sup>69)</sup> 또한 2015년 5월 31일에는 미국의 카터 국방장관은 아시아 안보 대화 직후 하이퐁을 방문하여 양국관계의 현대화에 노력한다는 공동구상에 합의하였으며 카터는 베트남 해군/해안경비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18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였고 베트남 정부는 이를 경비함 구입에 사용한다고 발표 하였다.<sup>70)</sup>

2016년 6월 7일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으며 이후 양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과 인도가 핵심 방산기술을 공유하는 내용의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71)</sup>

위와 같은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간 협력관계의 강화는 상호간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통적인 아시아태평양 세력으로서 기존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동남아

67) “미군 24년 만에 필리핀 다시 주둔..中 남진 차단” 『연합뉴스』 (온라인) 2016년 3월 22일, [http://www.ytn.co.kr/\\_ln/0104\\_201603220654563381](http://www.ytn.co.kr/_ln/0104_201603220654563381)(검색일: 2016. 6.13).

68) 양국 정례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Balikatan: 어깨를 나란히)은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를 마주 보는 지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69) “美 베트남 41년만 관계 정상화..中 견제 의도” 『TV 조선』 (온라인) 2016년 5월 24일,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90003.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90003.html)(검색일 : 2016. 5.30).

7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p. 66.

71) “인도까지 품은 美..中 포위 마지막 퍼즐 맞췄다” 『서울경제』 (온라인) 2016년 6월3일,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90003.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90003.html)(검색일 : 2016. 5.30).



시아 국가들은 그 가치가 크다. 또한 남중국해는 미 7함대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를 왕래하는 전략적 해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 수행상 매우 중요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을 제어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는 그들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태 지역에서 미중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질수록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는 강화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8. 미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관계<sup>72)</sup>〉



## V. 결론

최근 미중간 경쟁과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태 해양전략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서의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역내 해양안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해양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상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면서 해양에서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의 둔화, 국방예산의 지속적 감축 등으로 인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과거와 같은 수준의 해군전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등장한 것이 바로 미

72) *ibid.*

국의 2015년 아태 해양전략이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의 해양팽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이 누려왔던 아태 해역에서의 우위는 앞으로도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전체적인 미군 전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쟁 무대가 되는 아태 해역은 상대적으로 전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아태 해역의 현상유지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 그리고 능력은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미국과 인식을 공유하는 중국의 해양팽창이 자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해양팽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양에서 동북아시아까지 군사역량을 강화<sup>73)</sup>하여 지역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우방국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양영역에서의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아태 해역의 안정이 자국의 이익과 세계경제에 유리하다고 미국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 아태 해역에서의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은 미중간 분쟁 심화는 아태 해역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아태 해양에서 패권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국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태 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해당 해역 뿐만 아니라 한반도 인근 해역에 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고민해야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 글을 끝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아태 해양에서 국가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해양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간 해양 영유권 및 해상 경계 획정 분쟁 등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간 다자적 협력의 확대는 국가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며 초국가적 안보위협<sup>74)</sup>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태 해역에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두 번째로 각 국 해군간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73) 미국은 2017년에 F-35B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상륙강습함과 구축함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항공모함 전단을 서태평양에 배치해 동-남중국해 분쟁에 대응하기로 밝혔다. 현재 소규모 항공모함 전단의 주축이 될 상륙강습함 트리플리엄(LHA 7)을 건조 중이며 해당 함정은 소규모 항공모함과 규모가 비슷하며 F-35B 이외에도 MV-22B, MH-60S 등의 항공기도 탑재할 예정이다. “미국, 내년에 서태평양에 미니 항모전단 배치 추진” 『연합뉴스』 (온라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3/0200000000AKR201605030872000\\_09.HTML?input=1195m2016년 5월 3일, \(검색일 : 2016. 5.30\).](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3/0200000000AKR201605030872000_09.HTML?input=1195m2016년 5월 3일, (검색일 : 2016. 5.30).)

74) 해적, 해상테러, 해양오염, 자연재해 등을 의미하며 해당 위협이 대두하면서 국가간의 긴밀한 공조가 국제안보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이어서 2016년 RIMPAC 훈련<sup>75)</sup>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국 해군 활동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상호 의심을 방지하여 해군 군비경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다자간 해군 회의, 해군 함정 상호 방문,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010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국이 되었을 만큼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수록 자칫하면 멀어질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75) Rim of the Pacific Exercise, 미국 주도로 2년마다 열리며 태평양 연안국 해군들이 참여하는 연합 기동훈련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강병환,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중국의 대응-해상패권경쟁과 갈등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Vol.38, No.1, 2014
- 김기주·황병선 “셴카쿠(다오위다오)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53권 제2호(통권35집), 2013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 박창권, “미국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594호, 2015
-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넷미디어 2014.
- 조윤영,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해군력”, 『동서연구』 제21권 제2호, 2009
- 이형민, “Zumwalt(DD 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Strategy 21』, Vol.17, No.2, 2014
- 하도형,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 『국방연구』 제55권 제3호, 2012
- Bradford, John F. “The Maritim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for Indo-Pacific Sea Lane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33, No.2 (2011)
- Bueger, Christian. “From Dusk to Dawn? Maritime Domain Awareness in Southeast Asi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Vol.37, No.2 (2015)
- Dutton, Peter(e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A U.S.-China Dialogue on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Maritime Commons. Newport, RI: China Maritime Studies Institute, U.S. Naval War College, 2010)
- Erickson, Andrew S. “America’s Security Role in the South China Sea.”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9, No.1, 2016
- Kelly sayler, “RED ALERT: The Growing threat to U.S. Aircraft Carrier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6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the 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Air and Maritime Encounters. (November 12, 2014), Section V.
- O’Rourke, Ronald.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EEZ) Disputes Involving China: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 Redden, Mark E. and Saunders, Phillip C. Managing Sino-U.S. Air and Naval Interactions: Cold War Lessons and New Avenues of Approach.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Study of Chinese Military Affairs,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2
- The Information Fusion Centre(IFC)-“A Case for Information Sharing to Enforce in the

Maritime Domain,” Pointer: Journal of the Singapore Armed Forces Supplement, 2011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Achieving U.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in a Changing Environment.” 2015.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Version 1.0. 2014

## 2. 인터넷

“중국, 70년전 '남해9단선' 영해기선으로 고집할까.” 연합뉴스(온라인) 2015년 8월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4/0200000000AKR\\_20150804098\\_000083.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4/0200000000AKR_20150804098_000083.HTML)

“미국, 난사군도 인공섬 중국 군용기 착륙에 강력항의.” 뉴시스(온라인) 2016년 4월 19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_19\\_001\\_4031528&cID=10101&pID=101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_19_001_4031528&cID=10101&pID=10100)

“일본, 센카쿠열도 주변 육상자위대 배치 확정” 『한겨레』(온라인) 2015년 11월 24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18919.html>

“일본, 센카쿠열도 주변 육상자위대 배치 확정” 『한겨레』(온라인) 2015년 11월 24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18919.html>

“중국 열병식 신무기 마일 겨냥 무언의 시위.” 『연합뉴스』(온라인) 2015년 9월 5일,  
[http://www.yonhapnews.co.kr/video/2602000001.html?cid=MYH201509050\\_05500\\_038&input=1825m](http://www.yonhapnews.co.kr/video/2602000001.html?cid=MYH201509050_05500_038&input=1825m)

안성규,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15.10

미국, 동남아 지역서 해양 안보 강화에 300억원 투입.” 『중앙일보』(온라인) 2015년 11월 18일,  
<http://news.joins.com/article/19092880>

“미군, 24년 만에 필리핀 다시 주둔...중 남진 차단.” 『연합뉴스』(온라인) 2016년 3월 22일,  
[http://www.ytn.co.kr/\\_ln/0104\\_201603220654563381](http://www.ytn.co.kr/_ln/0104_201603220654563381)

“美, 베트남 41년만 관계 정상화...中 견제 의도.” 『TV 조선』(온라인) 2016년 5월 24일,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_052490003.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_052490003.html)

“인도까지 품은 美..'中 포위' 마지막 퍼즐 맞췄다.” 『서울경제』(온라인) 2016년 6월 13일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90003.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90003.html)

South China Sea: US Navy Destroyer Asserts Freedom of Navigation Near Fieri Cross Reet” The Diplomat, May 10, 2015. <[thediplomat.com/2015/05/south-china-sea-us-navy-destroyer-asserts-freedom-of-navigation-near-fieri-cross-reet](http://thediplomat.com/2015/05/south-china-sea-us-navy-destroyer-asserts-freedom-of-navigation-near-fieri-cross-reet)>

U.S. Navy Official Website, “Fort Worth Completes PMAV”.(2016. 1.13.)<[www.navy.mil/submit/display.asp?story\\_id=94794](http://www.navy.mil/submit/display.asp?story_id=94794)>

U.S. Navy Official Website, “Future USS Zumwalt will have San Diego Homeport”. (2016. 5. 20.)<[www.navy.mil/submit/display.asp?story\\_id=94794](http://www.navy.mil/submit/display.asp?story_id=94794)>

<http://exercisecarat.wordpress.com/about/>

“Improving Order in the East China Sea,” The Diplomat, May 04, 2015. <[thediplomat.com/2015/05/improving-order-in-the-east-china-sea](http://thediplomat.com/2015/05/improving-order-in-the-east-china-sea)>

Speech of Admiral Scott Swift,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Pandang Indonesia April 14, 2016. <[www.cpf.navy.mil/leaders/scott-swift/speeches/2016/04/western-pacific-naval-symposium.pdf](http://www.cpf.navy.mil/leaders/scott-swift/speeches/2016/04/western-pacific-naval-symposium.pdf)>

<http://aseanregionalforum.asean.org/about.html>>(검색일: 2016. 6. 7.)

<https://admm.asean.org>>

Secretary of Defense Ash Carter, Remarks at the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Kuala Lumpur, Malaysia, Nov. 04, 2015. <[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view/article/628351](http://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view/article/628351)>

<http://wpns.tnial.mild:8080/beritaWPNS/lengkap/1031>

<http://amti.csis.org/airstrips-scs/>

<http://www.vilaweb.cat/noticies/sis-mapes-per-entendre-perque-el-conflicte-del-mar-de-la-xina-pot-ser-la-mes-gran-crisi-mundial-en-poc-temps/>

globalita.com via CIMSEC <http://globalbalita.com/wp-content/uploads/2012/10/Air-Sea-Battle-map.jpg>, <http://cimsec.org/strategic-architectures>.

## Abstract

### Analysis and Effects of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Kim, Tae-Sung(Naval Academy)-Kim, Hyun-Sung(Naval Academ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announced th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in 2015. This report outlines the Department of Defense's strategy with regard to maritime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sia-Pacific region and its maritime domain for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the Department is focused on safeguarding freedom of the seas, deterring conflict and coercion, and promoting adherence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This paper examines four lines of effort that the Department is employing in order to preserve security in this vital region. ① Strengthening military capacity to ensure the United States can successfully deter conflict and coercion. ② Working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from Northeast Asia to the Indian Ocean to build their capacity to address potential challenges in their waters and across the region ③ Leveraging military diplomacy to build greater transparency and to reduce the risk of conflict ④ Working to strengthen regional security institutions and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n open and effective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Through these contents, this paper presents effects(① Conflict ② Cooperation) of th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The effects are as follows: ① Conflict(Escalating the conflicts between U.S. and China, Developing the Missile technology in China) ② Cooperation(Decreasing the possibility of an armed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Consolidation of the U.S.-Southeast Asian countries relations.)

Key words :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East China / South China Sea, Conflict, Cooperation.

: 2016 6 28	•	: 2016 7 20	•	: 2016 8 25
-------------	---	-------------	---	-------------